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1월 4일(금)
--(윤력 10월 11일)--
Пятница
4 ноября 2022г.
№ 43 (1201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러시아에서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주, 국민 단결의 날 다채로운 기념 행사

11월 4일(금)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에 사할린주 내 지역들에서 공연, 공식 기념 행사와 스포츠 행사가 진행되고, 가장 대규모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개최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행사는 10시40분 시민들의 행진으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탄생 성전에서부터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 공원까지 행진한다. 역사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11시에 <우리는 함께 한다 - 우리는 하나다!> 표어로 공식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기념식에 정부 및 사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사할린의 다민족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또한 행사장에는 흥겨운 오락과 군인들이 준비하는 메밀밥, 공예품 전시, 다양한 민족 요리 시식 대회, 활동교실도 펼쳐진다. 오후 2시-4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명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전국 <예술의 밤> 행사에 사할린주도 합류해 '우리의 전통'이란 주제로 행사가 열리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도 열리며, 주내 각 지방에서도 다채롭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17년 동안 이 기념일은 러시아의 주요 명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단결로 뭔가 성취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국민들의 단결로 강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민족과 문화와 종교도 다른 우리의 조상들은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대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 특별히 단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할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와 함께 국익 보호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조국의 안녕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형통과 가정의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국민 단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오하시에 '노동 용맹의 도시' 청동 기념비 제막

오하시 칼막스 거리에 대조국 전쟁 시 후방 노동전선의 업적을 기리는 '노동 용맹의 도시' 기념비를 세워 지난 2일(수) 제막식을 가졌다. 올해 9월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대조국전쟁 때 석유개발, 생산 산업에 중사해 큰 공로를 세운 주민들의 희생에 오하시는 '노동 용맹의 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에 청동 기념비가 설치됐다. 제막식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주 및 시정부 관계자, 사회 활동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사할린동포,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뜻 전달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월 1일(화) 현지 오후 6시 기준 중상자 33명, 경상자 124명 등 총 157명이 부상을 입고, 15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외국 국적 사망자는 총 26명 가운데 러시아 국적 사망자는 4명이다. 연령대가 20대인 이들 중 2명은 연해주 출신, 1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1명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출신이라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압사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전해진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 정상, 사회단체 대표 등이 이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의 2만6천여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표하여 서울 이태원의 비극적 압사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합니다."란 내용의 서한을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에게 전했다.

극동의 지역들에 사회적 제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자금 배정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연방 부총리의 주재로 열린 극동 사회경제발전 문제에 따른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제반시설 현대화와 건설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통합 보조금'을 통해 연방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과 극동 연방관구의 경제적 성장의 중심지들에 사회적 제반시설 건설과 현대화에 따른 정책 조정을 심의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이는 예산 자금의 최대한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절차"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2018년 -2023년 극동 연방관구 행정 자치지역들의 총11개 기획을 실행

하기 위해 1,228억 루블리가 배정됐음을 상기시켰다. 2018년부터 이 자금으로 577개 시설물이 건설되었는데 그중 병원 16개소, 응급센터 51개소, 13개 학교, 8개 유아원, 2개 유치원, 37개 체육 시설, 283개 운동장, 27개 문화시설, 14개의 별도 사회적 시설, 77개 공학 및 도시 제반시설, 8개 교통 제반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차량 도로 160km가 건설되고 개간됐으며, 951개의 사회적 제반시설을 수리했고, 632개의 사회기관을 위한 장비와 515대의 특수 차량을 구입했다.

또한 사할린주와 아무르주에서는 주택 거주를 위해 노후주택으로부터 2만8천 명 이상이 이사했다. 사할린주와 아무르주, 연

주의 대기업과 군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 1,2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했고, 또한 487개의 공공 건물과 '1000개 주택가' 프로그램에 따라 389곳의 주택가 구역에서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2022년 말까지 37개 시설들이 건설될 전망이다 가운데 그중 사할린에 보건 진료소, 연해주와 사할린에 2개 학교, 자바이칼과 사할린에 2개 유치원, 부랴치야에 2개 교육기관, 캄차트카와 사할린,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에 10개의 스포츠 센터 및 스포츠 시설이 포함돼 있다. 야쿠치야에는 '노동의 사거리' 창조적 클러스터가 건설되고, 사할린에서는 도시형 마을 유형으로서 샤희초르스크 지역이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며,

교통 및 동력 제반시설 건설이 계속된다. 또한 사할린주와 아무르주에서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새 주택으로 425명의 주민이 이사하게 된다. 47개의 사회적 시설물에서 보수작업이 진행되며, '1000개 주택가' 프로그램에 따라 834개의 주택가 구역과 5개 공공 구역의 보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병원, 응급센터, 도서관 등 40개 사회기관에 장비가 보급된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모든 예정한 계획들이 연말 전까지 성취되도록 지역의 수장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에는 58개 사회적 시설물과 동력 제반시설 건설과 4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11월 4일 국민 단결의 날 맞이

'무술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 기쁘다. 이것이 단결이 아닌가?'

다민족 어린이들에게 동양무술을 배워주는 <오스트로브>스포츠센터

얼마 전에 <오스트로브(섬)>동양무술센터(관장 안수학)의 선수들이 현재 <크리스탈>스포츠 회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일(수)에 방문하게 되었다.

실내에 들어가자 마자 눈에 먼저 벽에 있는 <오스트로브>센터의 로고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나란히 걸려 있는 한반도 두 국가(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였다. 2008년에 개설된 <오스트로브>에는 태권도, 합기도, 당수도, 킥복싱을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 WTF도 하고 ITF도 한다. 센터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사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술 익히기, 연수를 돕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유일한 태권도 8단인 민태출 사범이다. 그는 이미 은퇴했지만 세미나를 통해 <오스트로브> 선수들과 자주 수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5세부터 20세 까지 150명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양무술을 배우고 있다. 필자는 중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5세-6세의 수업도 재미있게 관람하며 청년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다민족이 많은 사할린이

라 이곳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이들이 무술을 익히고 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러시아인 학생들도 많고, 우즈베크, 키르기즈, 타타르, 한인 등 학생이 있다고 한다.

필자는 아제르바이잔의 청년 (16세) 울치예브 사이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 학생은 어릴 때 6세-7세 그룹에서 처음 안수학 사범으로부터 태권도 초급 기술을 익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수영 등 다른 운동도 해 보다가 4년 전에 다시 안 사범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제가 다시 태권도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실력도 늘어나고 대회에서 우승하니 매우 만족해요. 사춘기가 되면서 밖에 나가면 이유 없이 십대들의 공격적인 증세가 나타났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이게 다 없어졌어요. 보다 평화로워졌어요. 태권도를 좋아해요."라고 사이드가 말하였다.

지금 가을방학이고, 기술을 더 익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그는 거의 매일 운동실을 찾는다. 아이들과도

소통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5세-6세 유아들의 수업이 꽤 즐겁고 재미있었다. 모든 동작을 잘 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귀여웠다. 알고 보니 이 아이 중에 안 사범의 쌍둥이 손자·손녀도 있었다.

"아들은 어렸을 때 삼촌에게서 권투를 배웠고, 딸은 태권도 실력이 있었지만 음악에 몰두하여 손자들에게는 꼭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애들이 관심도 많고 좋아해요. 저도 기쁘죠."라고 안 사범이 소감을 나누었다.

30년 이상 태권도 사범으로 종사한 안수학 관장은 청소년 사범의 장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비결을 누구나 부러워 할 수 있다. 제자들은 그를 많이 존경하고 있다. 사범으로서도 그렇고 또한 선수로 활동할 때 아주 훌륭한 실력자였기 때문이다. 세계 태권도챔피언(격파) 3회 우승을 기록한 안수학 사범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WTF 감사장을 받은 적도 있다. 그는 태권도 6단 외에, 당수도 8단이다. 그리고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중에는 안 과장이 직접 키운 제자들도 있다.

<오스트로브>무술센터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것만 아니라 사할린주의 여러 무술연맹과 협회들이 공동으로 무술 대중화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 당수도 연맹 알렉세이 부토린(<오스트로브>소속 사범) 회장은 당수도 대중화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오하시에 <오스트로브>센터의 부속 센터를 열었다고 전했다.

태권도, 당수도, 합기도, 킥복싱 등 무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체 세미나, 경기, 축제도 많이 하고 다른 협회와 함께 연례 대규모 행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안수학 관장은 특히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았다고 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 사할린시 한인회(회장 천영곤)의 맴버인 그는 이 사회단체도 하는 기획이 많다. <오스트로브>는 고아원생들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고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당수도 체험교실도 연다.

안 과장에 따르면 <오스트로브>무술센터는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범들의 봉급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학부모들의 회비로 일부 보상하고 자신 같은 경우 <크리스탈>스포츠 회관의 공식 사범으



왼쪽으로부터: 안수학 관장, 세계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 알렉세이 부토린 사범



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젊은 사범들에 대한 지원금, 행사 개최 자금 등 관장으로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오스트로브>센터의 다양한 행사 개최에 센터 설립부터 거의 14년간 협력하고 있는 <아르세날>회사 천영곤 사장에게 많이 감사하

다고 전했다. 사실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후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동양무술 발전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뜻을 가진 사람 여러 분이 있어서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 단결의 힘이 아닙니까."라고 안수학 관장이 말하였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에나 루> 음악 경연 결과 발표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11월 8일(화) 사할린주 민속 창작센터에서 음악인들(전문가 및 아마추어) 가운데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민속 음악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작곡 지역 간 경연대회 결과가 발표된다. 이 경연은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의 음악 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하여 '에나 루' 민족 기획과 러시아 국민 문화유산의 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에나 루' 민족 기획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는 2021년 9월에 음악 연구 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 사할린의 연주자들과 음악인들은 작사와 작곡하는 법, 예술적 양식 탐색을 위한 전문적인 접근법에 대해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끝' 노래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 완성에도 참여했다. 2차는 2022년 사할린 소수민족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이용한 음악과 노래 창작 경연 대회 진행이다. 재능있는 작사가들과 작곡가들, 심사위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 모두를 초대한다.

이 행사는 11월8일(화) 오전 11시 사할린주 민속 창작센터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이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конкурса музыки "Эна лу"

8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по созданию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основе музыкального фольклор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музыкан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любителей).

Конкурс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области и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год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этно-проекта "Эна лу" ("Другая песня").

Этно-проект "Эна-лу" проводится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прошел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в формате музыкаль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й сахалин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и музыканты не только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подходе к поиску образов, написанию музыки и текстов, но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ты над песней "Край земли". Второй этап — проведение в 2022 году конкурса на создание музыки и песен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Сахалин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глашают встретиться и пообщаться с талантливыми авторами, композиторами и членами жюр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8 ноября в 11:00 часов в ОЦНТ.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예술의 밤>,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 아동 도서관에서 열린다

올해 <예술의 밤> 행사가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사할린주 아동 도서관에서 열린다.

11월4일(금)17시 -21시까지 러시아의 전통과 예술 및 러시아 전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의 문화를 주제로 한 주제별 행사장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기다린다.

가장 어린 독자들(유치원생)을 대상으로한 <우리들의 동화>행사장에서는 문예 창작수업이 진행되어 아이들은 러시아의 민속 동화를 알게 되고, 퀴즈대회에도 참가하며, 동화 수수께끼 그림 맞추기 한마당에서는 민화 속 유명 주인공들을 알아맞히고, 구전 민속 작품들을 맞힐 수도 있다.

7세 -14세(15세)의 학생들은 <우리의 동화> 행사장에서 러시아 국립 아동도서관의 디지털 그림동화집에서 '러시아의 민속 동화'라는 그림동화 상영 시 민속 문학 작품들을 만나보게 된다. 누구나 그림동화를 볼 수 있으며, 그림동화 속의 역할을 해볼 수도 있다.

저녁시간 내내 아동을 위한 다양한 행사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주제별 만남과 활동교실이 진행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할린주 아동 도서관의 협력자인 '독서 센터' 비영리 단체로부터 깜짝 행사가 마련된다. 학생 대상의 행사에서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사할린에 관하여'라는 만화 제작소가 열리고, <그림들로 어떻게 사할린의 역사를 설명할까>라는 활동교실에서 학생들은 만화의 장르를 알게 되며, 스스로 만화를 만들어보기도 한다.

<우리의 섬들>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향토역사 게임과 온라인 퀴즈대회를 통해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전통과 특수성 및 전반적인 사할린주의 문화와 역사와 자연을 알아보게 된다.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도시>행사장은 더욱 흥미로운데, 학생 독자들은 러시아의 도시들을 주제로 한 문학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도시의 비밀' 퀴즈 문제에 답을 맞히며, '도시를 맞혀보아라' 퍼즐 맞추기도 한다.

<우리의 친구들> 행사장에서는 '안녕, 한국' 창작 활동교실이 열리는데 상호작용의 문답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국가적 상징들에 대해 알게 된다.

행사 가운데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은 러시아의 민속 활동 게임과 보드게임을 해보고, '좋아하는 동화' 문학 퀴즈대회에서는 가진 지식을 시험해볼 수 있다.

(8면에 계속)

주 한인 여성회, 고아원에서 만두 요리 체험교실 진행

지난 31일(월) 사할린 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야나)의 회원 12명이 트로이츠크에 고아원을 찾아 왕만두 빚기 요리 체험교실을 열었다.

이날 고아원의 중고등 학생 25명이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일부 반죽을 만들고, 고기 왕만두 1100개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만두 속(간고기 기타 재료)과 일부 반죽은 집에서 만들어왔다. 만두 빚기 지휘에 여성회의 어르신 배금화(75세) 씨가 나서 만두 속 내용물과 반죽을 위한 밀가루와 물의 양을 가르쳐 주었다. 학생들이 만두 빚기에 호감을 가지면서 열의가 넘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고기 왕만두 만들기에 밀가루 10킬로그램, 만두 속(고기, 양파 등) 10킬로그램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왕만두를 찌기 시작하자 식당에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을 불러 작은 공연을 시작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 무용단이 춤을 추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무술학교(교장 김 레오니드)의 형제 선수인 김 짜무르과 니키타가 가라테 시범을 보여주어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 좋은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여성회 회원들은 아이들이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뭔가 더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타치야나 여성회 회장은 "사실 작년에 여성회는 연세가 좀 있는 동포 장애인을 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왔고 이번에는 고아원생들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측과 얘기를 나눴을 때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자 "선물보다 학생들과 뭔가 같이 만드는 게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란 답을 받아 만두 요리교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실천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만두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학생, 교원 모두가 고마움을 표했고 앞으로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회가 계속 협력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

(배순신 본사 기자) (사진 주여성회 제공)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옥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남아 있다.

첫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 사할린 동포의 대부분은 살아야 할 수단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 또한 재중동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다. 재중동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판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판결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평석 1)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슬픈 과거사를 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이어진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일그러진 정치적 관계를 동포들에게 무책임하게 폭력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동포 전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려 했던 논의 과정 및 제한적 이나마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현행 「국적법」을 고려한다면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의 평석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의 정치적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 평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평석 2;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관하여)

"동 지침은 중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들의 국적회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지침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위원장과 협의 거쳐 신원조회, 체류동향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는 신청의 근거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심사나 허가 기준이 없다. 결국 동 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원하는 동포나 국민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국적 회복에 대한 지침이 있기는 하나, 이 지침에는 신청 근거만 있고, 심사나 허가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동포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에 그 심사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한인들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동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음호 계속)

(전호의 계속)

2) 국적확인 및 국적판정과의 차이

가) 국적확인이란?

국적확인이란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달라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적을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사건 2: 무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12구합26159, 2014. 6. 19.)

위 사건 2에서처럼 대한민국 국적확인 소송은 2009년 시민단체와 동포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동포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이 만들어졌고, 2010년 5월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이 사할린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방문 이후에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은 2건의 소송을 시작하였다. 즉 무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전자)과 러시아 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한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취소 소송(후자) 등 2가지 이다. 이 두 소송은 2012년 8월에 제기되었으며,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등 취소'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대한민국 국적 확인' 사건은 2014년 6월 1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 확정되었다(본문 사건 2 참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제2조에서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해 놓았으나, 동포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다양하나, 대체적인 견해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무국적 동포는 '국적이 없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무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견해(학계)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견해로 나누이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원고의 부모는 조선인이었고, 원고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무국적 신분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피고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원고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무국적 동포들에게 국적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지만, 원고가 무국적이라는 점, 동포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예컨대 호적에의 기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무국적 사할린 한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의 무국적에 대한 입증, 동포라는 입증 등이 부족하다는 결론 해석할 수 있겠다. 고로 입증자료만 분명하다면, 무국적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나) (사건 2)의 판결의 문제점

위 판결은, 무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며, 임시조례의 계속성을 인정하면서, 호적에의 등재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호적에의 등재 여부를 따지게 되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무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글로벌 성공 노하우 공유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발

역대 최초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구성 통해 한상 네트워크 전문성 강화 중점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인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1일 오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막했다.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40개국 2,000여 명이 참석해 한상 네트워크 확장,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김점배 대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해외 한상과 국내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울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개회식은 최근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애도하는 해외 한상들의 묵념으로 시작했다.

- 이어 한상기가 입장하고, 김성곤 이사장의 개회사, 김점배 대회장의 대회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환영사 등 순서로 진

행되었으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와 외교부 장관 축사 대독이 이어졌다. - 끝으로 울산 출신 1호 한상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특별영상 상영돼 울산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세계한상대회가 3일간의 기간을 통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20년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개최를 선언했다.

이어 김점배 대회장(오만 알카오스 트레이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한상들은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왔고 우리 조국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때 한상 네트워크는 검색 국면에 있는 자유무역주의에 숨통을 틔울 산소 공급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주최 환영 오찬이 진행됐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Молодежка» знакомит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Региональная молодеж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ает свою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Так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ЮЧИВО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оспитанникам детских садов рассказали о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х Кореи, в игровой форме познакомили с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ой и письменностью, традиционным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ом тхэквондо через демонстрацию техники и разбивания твердых предмето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инструктор провел ряд развивающих игр, а также детям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Ребята были очень рады примери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одежду «ханбок» и устроить фотосессию.

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члены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етили детский дом города Анива "Алый парус".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воспитан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средством знакомства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ой, каллиграфией 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грами. Традиционно детям вр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Женсовет провел в детдом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манты»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октября члены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 Татьяной посетили Троицкий детский дом, где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манты».

25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под чут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женщин в этот день приготовили манты в количестве 1100 штук.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 их приготовление ушло 10 килограмм муки и 10 килограмм фарша.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трапезу разделили малыши, учащиеся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воспитатели. Всем хватило. А еще женсовет подготовил в подарок концертный номер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Фиман(Надежда)»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и показ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братьев-каратис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Виктория Бя

В детские сады скоро некому будет ходить

Сеул, 28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Ежегод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крываются около 1900 детских сад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август эт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31 099 детских садов, что на 9 139 мен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Закрылись в основном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и небольшие детские сады, в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20 детей», — сказал Чи Сон Э, бывший глава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который влияет на все аспекты жизни».

Число дошкольников в стране сократилось на 27,3 процента с 1,45 миллиона в 2017 году до 1,05 миллиона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произошло наибольшее сокращени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их закрылось 2330, в то время как число дошкольнико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75 794.

Следующим стал Сеул с сокращением на 1477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71 528 дошкольников.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сегда было больше всего детских садов, поэтому больше всего там и было закрыто», — сказал Ким Ен Сук из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 «Провинция Кенгидо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а,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пары поселяются там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также сыграла свою роль. Многие родители не пускали своих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из-за страха заражения. В 2020 году, когда пандемия достигла своего пика, было закрыто 3237 детских са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величивает коли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о частные закрываются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чис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280 с 3157 в 2017 году до 5437 в 2021 году, но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сократились почти в четыре раза, на 9207.

Карпы в языке и в литературе

Карп (잉어) — это часть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 бытовой культуры.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когда-либо знакомого с корейской живописью, непременно вспомнит картин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арпов. Вместе с этим известны разные рецеп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этой рыбы, например карпы, маринованные с красным перцем. Упоминания о карпах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и в корейских сказках: в одной из таких историй можно узнать, как из глаз карпа, словно у человека, лились слезы. В современных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егда встречается много детских книг, на обложках которых размещены карпы. Так, одна книга называется «Человек-дерево, спасший карпа», а другая — «Слезы карпа». Популярна и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карп реки Хуанхэ хочет стать драконом. Русскоязычным читателям, в сравнении с воспитанными на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е людям, иногда не всегда понятно пристрастие корейцев к образу карпа. Ведь в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е карпы имеют иной смысловой и ассоциативный ряд.

Слово «карп»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тносится к названию пресноводной рыбы, одомашненной разновидности сазана. Этимологически это слово связано с разными славянскими языками. При этом оно может писаться ещё и с заглавной буквы, означая имя собственное. Имя одного из семидесяти апостолов Иисуса Христа упоминается в Евангелии и в переводе с древнегреческого означает плод.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что это крестильное имя (а именины Карпы отмечают в июне и в октябре) легло в основу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фамилий: Карпов, Карпович, Карпенко, а также и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оизводных — Карпачёв, Карпец, Карпужин. Впрочем, образование этих фамилий от названия рыбы учёными не исключается. При этом и имя Поликарп (от древнегреческого — обильный плодами) и производная от него фамилия имеют в своей основе отсылку к слову «карп».

Крестильное имя Карп нечасто, но встречается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у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 в «Униженных и оскорблённых», у Н.В. Гоголя — в «Мёртвых душах», у Л.Н. Толстого — в «Войне и мире». Карпом зовут одного из слуг в «Вишнёвом саду» А.П. Чехова. А вот в XVII веке была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Повесть о Карпе Сутулове», жен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оказалась не только добродетельной, но и премудрой, забывшись от незадачливых поклонников.

Имя Карп обыгрывается у А.Н. Островского — в его комедии «Лес» (1871). По замыслу драматурга, Карп Савельич — лакей вдовы Раисы Павловны Гурмыжской. Его имя встречаетс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ервого действия и потому сразу запоминается. Кроме того, это имя выбрано автором неслучайно, также как и имя ключницы Улиты с намёком на медлительность героини. 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Аркадий Счастливцев замечает следующее: «Да ведь карп — рыба». Позже, общаясь с лакеем, этот герой и вовсе выступает со следующими словами: «Да что карпия, что карп — все равно. Уж лучше бы вас Сазаном Савельичем звали». А затем и вовсе называет героя то Окунем, то Налимом Савельичем. И сам лакей с редким именем в первой части драмы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замечает всё, а «уж особенно, что мимо рук-то плывет».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упоминаний о карпах немного и все они, чаще всего эпизодические, соотносятся с названием кушанья, 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из рыбы. Самым известным при этом, наверное, следует считать рассказ Саши Чёрного «Счастливы карп» (1927). Вокруг покупки карпа на рыбном рынке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история о мальчике Мише и его семье. Купленный в субботний базарный день карп оказывается живым, мальчик упрашивает маму не готовить из карпа блюдо, и потому карп живёт в ванной. А уже потом героями рассказа находится другой выход: карпа отпускают на волю, спасённый карп,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Миши, плавает в озере (а в нём запрещено ловить рыбу) и рассказывает своим сородичам о «счастливом» спасении. А.П. Чехов был заядлым



рыболовом. В своей прозе он упоминал о разных рыбах, писал о карасях, а вот карпов, вероятно, вниманием обошёл.

У французского поэта Гийома Аполлинера в его сборнике «Бестиарии, или Кортёж Орфея» (1911) одно из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освящено карпам («La Carpe»)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оно по-французски). В переводе Михаила Яснова эти поэтические строчки зазвучали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Живёте вы в садке, в запруде,
Подоле, чем иные люди.*

*Вы так печальны, что, поверьте,
Вас, карпы, жаль — и нам, и смерти.*

Однако в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е упоминания об этой рыбе имеют более широкий смысловой план: от мифологического до эстетического. В япон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карп» звучит как кои (鯉 или コイ) и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удачей. Есть у этого образа и другие трактовки. Карпы часто изображаются художниками: как в красках, так и на гравюрах.

Вот как перевела Татьяна Соколова-Делюсин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японского поэта Ёса Бусон (1716–1783):

*За деревьями
Усадьбы не видно, но в небе
Плавают карп.*

Пожалуй, карпы чаще, чем другие рыбы фигурируют в восточной поэзии. В Японии, например, образ карпа сопровождает праздник — День мальчиков (он отмечается 5 мая). В мае (на начало месяца приходится и «Золотая неделя») японцы вывешивают развевающиеся по ветру флаги в форме карпов. Карпы в таком случае символизируют присутствие мужчинам стойкость и смелость.

В Китае образ карпа имеет многовековую традицию и его истоки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ещё в мифологии. Так, даосский святой Цинь Гао путешествовал верхом на карп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ой описан карп, этой рыбе предписывают и особые символические значения. Декоративные карпы в Китае считаются хорошим подарком, сулящим счастье.

Корейский поэт Ли Токхён (1561–1613) в одном из свои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вспоминает героя китайского предания. Ван Сян по приказанию мачехи пытается добыть зимой подо льдом карпа. Проявив сыновью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юноша хочет руками пробить лёд, однако ледовая пелена сама разбивается перед добродетелью героя. В переводе Анастасии Гурьевой эти стихи так звуча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Я, как Ван Сян, добуду карпа подо льдом,
И, как Мэн Цзун, взращу бамбук среди зимы.*

*Пока седины не покроют голову мою,
Носить хочу одежды Лао Лай-цзы, как ребёнка,*

*И, словно Цзэн-цзы, культивировать хочу
В себе черты почтительного сына.*

Постигая и дальше восточную культуру, можно находить не только черты различий, но и сходство во взгляде на присущие разным народам образы.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н Сок Ёль: РК не поставяет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Украине

РК не поставяет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Украи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28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 ходе краткой встречи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прибытии на работ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ветил на просьбу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том, что поста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разрушат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что РК поставял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Украин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ул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и добрых отношений со всеми странами,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Заявив, что РК не поставяла Украине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Юн Сок Ёль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вопрос суверените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сообщало о поставках Украине касок, одеял, палаток и других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заявляя 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Более 21,5 тыс.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вакцинации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и

С начала вакцинации населения от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довлетворило более 21,5 тыс. обращений 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й в связи с осложнениями. По данным комитета по компенсаци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в результате вакцина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27 октября, всего за период вакцин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89.788 обращений от пострадавших. Из рассмотренных 71.718 обращений удовлетворены 21.502, в том числе, 11 с летальным исходом. В 365 случаях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доказательств о последствиях вакцины пострадавшие не получали компенсации, но были отнесены к категории пациентов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ть вызваны вакцин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получили помощь в покрыти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ов. Всег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3 октября от граждан поступили почти 480 тыс. заявлений об осложнениях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Это 0,37%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ививок. 96% таких заявлений связаны с болями в месте укола, мышечными болями и другими незначительными отклонениями. На анафилактику 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более серьез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пришлось 4%.

Исчезли 67 вьетнам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РК через аэропорт Янган

67 вьетнам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РК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Янган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исчезли, и связи с ними нет с 13 ок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полагают, что они решили остаться в стране с целью дальнейшего нелегаль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этой связи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се рейсы между Янганом и аэропортами Вьетнама. Туристы бежали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парка развлечений и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требовала от вьетнамских турагентств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вероятность бегства туристов. Аналогичные требования были выдвину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Сим Вон Соп отметил, что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нацелен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поэтому его необходимо сохранить. Ведутся поиски сбежавших туристов, проводи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ия в их бегстве брокеров, помог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ам остаться в РК нелегально.

Группы BTS и BLACKPINK, солист Чон Гук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People's Choice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стала номинантом премии People's Choice Awards в категориях «Группа года» и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года» с композицией Yet To Come, а также в категории «Концерт года» с выступлением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Солист группы BTS Чон Гук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ях «Коллаборация года» и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года» с песней Left & Right, выпущенной совместно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певцом Чарли Пут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ая женская группа BLACKPINK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премию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Группа года» и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года» с клипом Pink Venom.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ится 6 декабря.

Возобновляется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граждан ещё восьми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С 1 ноября РК восстановит действ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для граждан ещё восьми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Макао, Соломоновых островов, Кирибати, Микронезии, Самоа, Тонг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граждане 91 страны и региона, для которых данный режим был отменён в марте 2020 года, снова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РК без визы. Кроме того, с 24 октября будет разрешён сход на берег пассажирам круизных судов. В РК могут въезжать без визы граждане 112 стран.

(RKI)

Кровавый Хеллоуин Сеула: к чему приводит жажда праздника

В давке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гибли не менее 154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четырех россиян

Праздник Хеллоуин, который весьма популярен в Южной Корее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обернулся страшной трагедией. В Сеуле в результате давки, которая возникла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погибли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четырех россиян. Количество жертв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Как следует из сообщений местной прессы, корейская полиция была готова к повышенному наплыву празднующих Хеллоуин.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не помогло. Публика стала приходить к окружающим гостиницу Hamilton улицам и переулкам Итхэвона еще днем. Люди устали от ограничений, которые действовали более двух лет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из-за которых Хеллоуин не отмечали после 2019 года, а потому на этот раз собралась огромная толпа — около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молодежь в возрасте от 17 до 30 лет.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людей скопилась 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площад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переулках шириной не более 3–5 метров. В итоге после 10 часов вечера возникла давка, когда столкнулись две волны людей, которых подпирала сзади. Некоторые не выдерживали, падали, на них как домино ложились новые люди, создавая страшную картину из человеческих тел. Стали раздаваться отчаянные крики, призывы о помощи, началась паника.

Спасатели, медики были вызваны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а полиция был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но оперативной помощи помешал ряд факторов. Основная улица Итхэвона достаточно узкая, и там практически в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возникает пробка. Теперь же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стояли люд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стремились посмотреть, что же происходит там, откуда доносится шу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ь спасателей и врачей прибыла с опозданием почти на час, и все равно они не 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тех, кто нуждался в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сами по себе переулки, где произошла давка, в том районе очень узкие. Спасатели часто просто не могли выдвинуть из массы тел тех, кто еще подавал признаки жизни.

К работам по спасению пострадавших стали привлекать и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говорили, что знают, как делать искусственное дыхание. Часть людей помогли доносить пострадавших до карет скорой помощ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 21:00 по Сеулу,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мертей составило 154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98 женщин и 56 мужчин. Кроме того, ранения различно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получили 133 человек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яжелых раненых.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 молодые люди. По словам врачей,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смерти — удушье, которое возникло в результате чрезмерного сдавливания.

Среди жертв оказалось заме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было ожидаемо, так как Итхэвон известен и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вартал», где прожи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кспатов. Полиция и Служба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предоставили разные данные по числу погибших иностранцев.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заявили, что погибли 26 граждан из 14 государств, тогда как пожарные сообщили о 20 смертях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К сожалению,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жертв среди граждан РФ.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от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они получили уведомления о том, что среди погибших — четверо россиян, все они — молодые девуш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21 до 27 лет, часть из них —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ки из РФ, а часть — россиянки европейской внешности.

Ситуация с трагедией в Корею была взята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Мэр Сеула О Се Хун прервал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и экстренно вернулся в Корею, чтобы лично возглавить часть работ.

Власти же сейчас пытаются восстановить картину трагедии до мельчайших деталей, чтобы понять, что именн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давку и можно было ли ее избежать. Некоторые стали кивать на полицию, говоря, что повышенн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было ожидаемо, а потому надо было сраз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разведение потоков людей. Полиция же,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лась на обеспеч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преступлений. Есть и те, кто считает, что в данном районе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трагедия была ожидаема: район маленький, улочки узкие, там постоянно образуются транспортные заторы и скопление народа просто из-за физ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пространства, а потому надо было просто закрывать выходы из метро и ограничивать доступ публики сверх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лимита, что неизбежн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бы массов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соскучившихся по развлечениям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С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ется фотография и история одного иностранца. Буквально за пару минут до начала давки он забрался по стене переулка на одну из вывесок и повис на ней. Кто-то приветственно засвистел, кто-то стал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а кто-то назвал его поведение «шутовством» и «позерством». Однако теперь оценки его действий иные: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иностранец просто понял, к чему идет дело, и имел опыт или подготовку по действиям в подобных ситуациях, уйдя на «второй этаж», где и смог избежать давки. Судя по видеозаписям, затем многие пытались повторить этот же ход, но им не удалось выбраться из общей массы тел.

В связи с трагедией в Южной Корею до 5 но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объявлен национальный траур. Данный инцидент стал самым крупным по числу жертв, начиная с апреля 2014 года, когда затонул паром «Севоль» и погибли 304 человека.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Фестиваль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В Москве в Росс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РУДН) 28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ся четвертый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Он проводится с 2017 года.

Из-за пандемии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и возобновлено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дань уважения много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го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мира, включая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объедин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й треки.

Официальную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открыл ректор РУДН Олег Ястребов.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Чанг Ин Ё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исей Ким, руководитель сек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ГИМО,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РК и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Валерий Су-



хи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комиссии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Ли Чулсу.

Для гостей и студентов РУДН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традиционным играм, особенностя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работали 5 секций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где свои доклады представили учащиеся двух московских школ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школа №17 и школа №1273 г. Москвы),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ов

РУДН.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раскрыла грани современной и истор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Кореи. В ней выступили солистки ансамбля «Уллим»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Хэгим Ли Ю Джин и Ли Юн Хи; балетмейстер, хореограф и исполнитель Сон Ындок;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Бомбарам; кавер-группа Crowned Clown; команда Тхэквондо «Альтис».

Учащиеся школы 1273 представили кавер-танец в стиле K-pop, студенты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УДН декламировали стихи и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ценки из практики граждан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ста пятидесяти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из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педагог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учащиеся московских школ №17 и 1273,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и факуль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наук РУДН.

Медиагрупп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Охе открыли стелу «Город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Памятное сооруже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подвигу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озвели на улице Карла Маркс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объект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ел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онструкцию с металлическим каркасом. Высота сооружения – более 9 метров. На барельефе –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во времен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трасса нефтепровода Оха –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Кроме того, на объекте разместили герб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текст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Благоустроена прилегающая территория, смонтирована подсветка.

–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Это большая победа. Мы все вместе долго добивались присвоения Охе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 Города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И вот, наконец,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аких городов в России всего 44. Столь высокая оценка – результат самоотверженного труда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и всего район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хинцы проявили настоящий героизм и обеспечили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ичем трудились все жители –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годы войны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высокими темпами рос промысел нефти. Скважины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давали до 75 процентов всей ее добычи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доставки этого це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материк в сжатые сроки был проложен нефтепровод. Причем «черное золото» с промысла Эхаби считалась лучшим по качеству в стране. К примеру, танки,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е в Курской битве, были заправлены дизельным топливом, произведенным из охинской нефти.

– В сложнейшие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жители вашего совсем не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 его население в 1941 году едва превышало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нашу общую Победу. Нефть – кровь Победы в развернувшейся тогда и «войне моторов». За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трудящиеся района извлекли из недр свыше 3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нефти. Женщины занимал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места мужчин, призванных в Красную Армию. Ратный подвиг многих из них отмечен высоки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открытием стелы «Город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Пусть память о трудовом и воинском подвиге жителей Охи всегда будет источником гордости за свой город и за всю нашу огромную страну, – процитировал телеграмму Помощ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Мединского и.о. главы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Евгений Михлик.

Охинцы добывали не только нефть, но и снабжали страну рыбой. Активно помогали фронту вещами и добровольными пожертвованиями.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несколько самолетов. Одна из эскадрилий была названа в честь Охи. Всего за годы войны жители города передали в фонд помощи фронту и Красной Армии свыш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 годы войны у нас работал маслобойный завод. Швейные цеха изготавливали военное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Школьники восьмого класса уходили по мобилизаци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рабоч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 заменить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фронт. Я горжусь нашим городом – городом славы и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 рассказал ветеран нефт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историк и краевед Александр Геллер.

Напомним,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РФ о признании высокого статуса Охи поддержали более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 масштабной акции по сбору подпис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переедет в новое здание

Переезд в отдельное здание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создать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ациенток.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 размещения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суждалс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Корпус, в котор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е располагалось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отвечал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ям размеще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служб,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После вхождения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 соста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дразделение временно переехало в один из ее корпусов. Сейчас отделение готовится к перемещению в отдельно стоящее здание, которое ранее занимала аптека №88.

– Самое главное, из-за чего и начинался этот процесс, что женщин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гинекологии, будут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вс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Начиная от КТ, МРТ, ангиографа, целого отделения УЗИ-диагностики, заканчивая любой другой. Ну и естественно он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всех на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Обновленное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 50 койками. Здесь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как экстренную, так и планов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Сейчас в

корпусе выполняю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нутренние помещения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ндартам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Аптечные мощ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оизводство лекарств, которые раньш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в этом здании, перемещены в аптеку №107.

– Аптеку № 107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же знали,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изготовление лекарственных форм – микстур, капель, порошков было здесь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так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было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о в аптеке № 88. Сейчас все мощности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переведены на базу аптеки № 107,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ГУ ОТП «Фармация» Лариса Купчик.

Открытие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новом зда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в приобретении снегоуборочной техники и обучении сотрудник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профильным региона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подготовки к работе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состоялось на заводе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мени М. А. Федотова.

–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ой перед островными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стоит больш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и качественную расчистку дворов от снега. Выйт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уборк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может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Это небольшие машин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своевременно расчищать дворы от наледи и снега. Важно, чтобы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ими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едприятия определят потребность в специаль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а мы предоставим им поддержку. Возможны разные механизмы помощи, в том числе – лизинг.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дворники работают ру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труда, должны остаться в прошлом,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ЖКХ рассказали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некоторым их сотрудникам не хватает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и обслуживания снегоуборочной техники. Было реш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чение, которое проведут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а также механики завода имени М. А. Федотова. Занятия начнутся уж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 У нас 6 своих и 10 арендованных средств малой механизации.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трудников стоит остро. Люд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такой техникой, нуждаются в специ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зимой дво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жны быть такими же чистыми, как и улицы. Для этого разработан и внедрен специальный стандарт. Его соблюд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Сейчас у завода и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порядка 40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Есть грейдеры, роторы, погрузчики, малая техника.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оперативно и эффективно расчищать улицы и тротуары. Во дворах, где работают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ну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 убирать снег, не дожидаясь, когда образуются большие сугробы. Без средств малой механизации делать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В январе было закуплено 140 таких машин. Поддерживаю предло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для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комфорта в наших дворах,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1100 дворов. Работы прошли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ого и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кв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и хорошую оценку

Проверку объ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вела член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координатор центра мониторинг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одератор тематической площадки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На Сахалин она прилетел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благоустроены 28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За счет област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веден во дворах 17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Наша цель – сделать города и села региона уютными и комфортными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не должно оставаться разбитых, неухожен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дворов. При этом очень важен свежий взгляд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стороны. Они должны подсказать, все ли мы правильно делаем, не упускаем ли какие-то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оспользуемся их советам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посетила два сквера. Первый у перекрестка улиц Пограничной и Ленина, второй – у перекрестка Есенина и Комсомоль-

ской. Скверы Светлане Калининой понравились.

– Вместе с тем озвучен ряд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мы учте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игровых площадках. Некоторые сооружения могут травмировать детей. Надо ограничить высоту подъема качелей, увеличить толщину мягкой песчаной подушки, чтобы сделать падения менее опасными.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инвентаризация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а также лавочек, урн. Вся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должна размещаться на сайт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чтобы граждане могли узнать, например, когда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 тот или иной объект,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ходе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посетит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з задержек получили все положенные выплаты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2022 году н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линии ведомства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свыше 1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еобходимые на эти цели средства поступают своевременно 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в пределах лимитов ежемесяч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 Средства без задержек поступают из област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Выплаты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е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Пособия, в том числе на детей, на питание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олучают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роки, не позднее последнего дня текущего месяца, – сказала Ольга Орлова.

Так, по ее словам, сегодня уже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ены вс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по выплатам в октябре.

В 2022 году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ующих на островах. Появилась компенсация проживания в пансионате пр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ервой, второй и третьей групп, детей войны и неработ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аквапарка. Всего их на уровне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двухсот –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пакетов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стране.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гает и семьям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ам, добровольно заключившим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с 1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300 тысяч рублей, установлен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перечислены более чем тысяче семей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реквизиты. Причем средства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ляются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оэтому выплаты мобилизованным и добровольцам не оказывают никакого влияния на ритмичность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платежей.

Почти три десятка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потуш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С начала сезона в регионе ликвидировано 26 пожаров, возникш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лесного фонда. Чаще всего возгорания были в Охин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Больше число пожаров было потушено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обнаружения.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ущерб, нанесенный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ранним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которые прове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работ по охране лесов от пожаров в регионе было выделено 438,5 млн. рублей. Из них 162,8 млн. рублей –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 В этом сезоне в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закупалас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техника для борьбы с лесными возгораниями. Построено 30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роложено 260 километров новых минерализованных полос. Установл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задани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му обустройству лесов выполн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Материалы по фактам лесных пожаров своевременно передаются в органы дозн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ожарного надзора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и выявления виновных лиц.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пять маршрутов авиационного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434 километра и 53 маршрута наземного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 5157 километров. Также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проводился косм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лесопожа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Для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леса с воздуха применяли четыре воздушных судна. Число летных часов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Также возросла численность лесных пожарных на 29 человек, группировка парашютно-десантной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базы – на 9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в личный состав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ходят 184 челове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쿠바에 한글학교 세운 정호현 교장 "한류 이끌 인재 육성할 것"

재외동포재단 지원받아 9월 초 개교... 청소년·일반인 108명 학생 몰려

"쿠바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려 양국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9월 5일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에서 개교한 한글학교를 이끄는 정호현(50) 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를 배워 통역·가이드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학 연구자도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에는 현재 1천여 명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쿠바에 한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921년 3월 25일이다. 멕시코에 살던 한인 277명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쿠바 땅을 밟았고, 이들은 에네켄(에니깁·선인장의 일종) 농장에서 일하며 뿌리를 내렸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현지화됐지만,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이전 한인후손문화원)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명맥을 이어왔다. 2014년 쿠바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영주권을 획득한 정 교장은 쿠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다.

쿠바에서는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바나국립대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2018년까지 운영했고,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문을 닫았다.

이번에 문을 연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멕시코 공관으로부터 재외교육기관 등록증을 받은 공식 학교다. 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문의가 쏟아졌고 180명이 등록해 7개 기초반과 중급과정 2개 반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현지 한류 팬들도 몰려 중고

생·대학생이 20%고, 나머지가 일반인이다.

한국어 교재는 세종학당재단이 지원했고, 멕시코 한글학교에서도 교육 교재와 학교 비품 등을 후원했다.

정 교장 "한인 후손에게 정체성 심어주고, 한-쿠바 가교 되도록 돕겠다"

정 교장은 "2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쿠바인 교사 3명과 현지 거주 한국인 3명이 특별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단순 물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해외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규모 원유 저장 창고 화재로 극심한 전력난도 겪고 있어 개교일부터 정전사태를 맞았고, 에어컨을 쓸 수 없어 땀통에서 수업하는데도 다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열심"이라고 뿌듯해했다. 정 교장은 개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가 발전기를 지원해주기로 해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 그는 "K-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한국어 배우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다"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8일에는 한글날을 기념해 '쿠바 청소년 꿈 축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센터와 함께 '한국 문화 주간 행사', '한류 팬클럽 행사 지원', '쿠바 도서 박람회'에 한국 부스 개설' 등에도 나선다. 정 교장은 "쿠바에는 '아르코'(ArtCor), '쿠바아모코레아'(CUBAamoCorea) 등 여러 개의 한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으며, 쿠바중앙TV에 'K-팝' 세션이 있고 매주 2시간 K-팝만 들어주는 채널도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에 한글학교 세운 정호현 교장



9월 5일 개교한 쿠바 아바나의 한글학교 수업 장면



한글학교가 개설된 쿠바 아바나의 한국문화센터 전경

그는 "지금은 미수교국이지만 조만간 한류 영향으로 한국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질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를 대비해 학교가 한국 문화를 발신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재외동포의 창'**, 2022년 10월호)

[우리말로 깨닫다]

높임법과 존경 또는 사랑

우리말에는 높임법이 발달하였습니다. 높임법 중에서도 듣는 상대가 누구지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상대 높임법이 발달하였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 상대 높임이 발달한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어에 상대 높임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발달하였다는 말에서 우리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 발달하였다는 말은 복잡하다는 뜻도 됩니다. 당연히 복잡하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실수도 많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도 높임법이고, 심지어 한국인도 많이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높임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압존법의 경우는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높임법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저도 잘 지키려 노력합니다. 반대로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보니 높임법이 세상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왜 반말이야?'는 말 다음에 주먹다짐이 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높임말보다 어려운 게 반말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늘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높임법에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는 반대되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따라 높임의 등급이 달라져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존댓말을 하시고 아랫사람을 가리킬 때도 함부로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늘 존대를 하십니다.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색했습니다만 선생님이 편하다고 하시니 그냥 따를 수밖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칭에도 늘 높임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린아이도 하늘처럼 여긴다는 종교에서 어린아이에게도 머리 숙여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진실한 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만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닌 몸마저 인사한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인사도 수행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높임법도 수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배어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높임법이 종종 차별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겁니다. '니가 감히 나에게'라는 마음은 언제나 오만합니다. 나도 감히 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을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현란하게 바뀌는 나의 높임법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에 따라 계산하고, 거리를 재면서 높임의 등급을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높임의 대상인지, 예사 높임의 대상인지, 아주 낮춤의 대상인지, 예사낮춤의 대상인지 마음속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재고, 낮춤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는 높임말을 하면서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듯합니다. 마음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말의 높임법은 근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존경은 상대를 하늘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가능한 한 높임법을 널리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구별하지 않고 서로 높여가며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말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높임법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웃음이 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글로벌 성공 노하우 공유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발

역대 최초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구성 통해 한상 네트워크 전문성 강화 중점

(3면의 계속)

오후에는 ▲한상 기업인과 국내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의 장 <한상포럼> ▲글로벌 비즈니스 이슈와 산업 트렌드를 통해 투자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I, II>를 비롯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면접>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계한상대회 개최식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기업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됐다. 총 13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기업전시회의 오프닝을 기념하기 위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점배 대회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개막 테이프를 컷팅하고, 전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이틀째인 2일(수)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 그룹인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을 구성해 비즈니스 성과 증대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 자문단은 컨설팅, 비즈니스 미팅, 콘텐츠, 조사 연구,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트렌드와 해외 비즈니스에 이해가 높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 오전 8시부터 진행된 <한상 비즈니스자

문단 발족식>에는 자문단 및 한상대회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진행된 특강에는 자명 블루에플에셋 창업자(캐나다VC)가 강연자로 나서 '나스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캐나다 증시 상장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에게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 중 바이오 분야의 이엑스 헬스케어, 프록시 헬스케어, 타이로 스크프와 기술 분야의 프로메디우스, 인투스카이, ㈜비주얼 테미놀로지 등 각 3개 기업이 발표 시간을 가졌다.

대회 3일 차에는 식품/뷰티/기타 부문 3개 기업의 발표가 이어졌고, 최종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기업에는 상금과 함께 내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초청 기회가 주어진다.

오후에는 대회 첫날에 이어 글로벌 한상 기업의 성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의 모델과 경영 전략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글로벌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글로벌 한상 기업의 기회와 도전 과정을 살펴본 1부에서는 이장섭 전남대 교수의 '중

국 광동예지과학기술그룹유한공사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도전' 발표를 시작으로 이태희 계명대 교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브리콜피르의 선택, 역풍장범(逆風颯犯)', 정갑연 안동대 부교수가 '말레이시아의 K-Food를 주도하는 KMT Group' 발표를 진행했다. 2부 글로벌 사례발표 시간에는 고상구 베트남 K&K글로벌트레이딩 회장과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 글로벌 스포츠 그룹 회장이 사례발표자로 나서 각 분야별 해외 진출 전략과 기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서 세계한상대회의 20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세계한상대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 기념행사는 한상 20년사를 담은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한상대회를 이끌어 온 분들에게 감사의 전하기 위한 공로패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한상청년 온라인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여, 청년들에게 한상 기업 인턴십 사업 및 해외 취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3일(목)에는 <스타트업 피칭대회 II>가 이어서 진행되었고, 이후 폐회식과 환송오찬을 끝으로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우리 함께〉 상호작용 아트 행사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제 내내 열리는 가운데 퀴즈대회의 문체에 답을 맞히고, 수수께끼의 그림을 알아맞히며, 크로스워드 문제를 풀고, 자신의 소원과 견해를 남기거나 그림을 그려 표현할 수도 있다.

〈음악적 씬터〉로 축제를 마무리하며 누구든 러시아 민요를 부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좋아하는 민요를 기억하도록 하고, 새로운 민요를 배우며, 음악 퀴즈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Ночь искус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святят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я акции "Ночь искусств" в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ко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посвящены теме "Наши традиции".

Дет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4 ноября с 17 до 21 часа ждут темати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посвященные рус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и традициям,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е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На площадке "Наши сказки" для самых юных читателей — дошкольников — состоится литературно-творческие занятия.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ятся со сказкам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викторине, на поляне сказочных загадок смогут угадать популярных героев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и са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ебята 7-14 (15) лет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литературным народ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на площадке "Наше искусство", во время показа диафильмов "Сказк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з коллекции оцифрованных диафильмов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посмотреть и даже озвучить диафильмы по ролям.

Во время всего вечера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для ребят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тематические встречи и ма-

стер-классы.

Читател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будет ждать сюрприз от партнё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 команды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 чтения". Во время акции для детей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мастерская комикса "Про Сахалин", посвящённая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а "Как рассказать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а в картинках"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жанром комикса и создадут свои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ке "Наши острова" ребята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с помощью краеведческих игр, онлайн-викторины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а также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и природ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Для любителей путешествий будет интересна площадка "Наши города". Читатели окунутся в мир литературы, посвященной городам России, ответят на вопросы викторины "Тайны знакомого города", соберут пазлы "Угадай город".

Творческая мастерская "Здравствуй, Корея!" будет ждать читателей на площадке "Наши друзья".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активных заданий дети узнают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мволах Кореи.

Во время акции дет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настольными и подвижными играм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оверят свои зна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й викторине "Любимые сказк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вечера для ребят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интерактивная арт-площадка "Мы вместе", на которой читатели смогут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викторины, разгадать ребусы, кроссворды, оставить свои пожелания и отзывы, а также нарисовать рисунок.

Вечер завершится "Музыкальной завалинкой", на которой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спеть русску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Ребята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вспомнить любимы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и узнать новы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узыкальной викторине,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주민을 문서기록과로 초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행정사업 문서기록과에서 공개의 날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11월11일(금)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부의 〈기록 문서 마라톤〉 실행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이 기획은 지역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세기의 60년대 - 80년대 сахалин주의 생활상을 주제로 하는 디지털화된 다큐멘터리 상영이 계획되었다.

방문객들은 문서기록과가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 업무에 대한 관심사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스슬록 홈페이지에서 전자 형태로 신청서 제출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상담해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9시 -17시까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휴식시간13시 -14시. 주소: 레닌나 거리, 69.). 문의 사항은 전화 300 - 829(추가 16번)로 알아볼 수 있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 архив

В архивном отделе управления дел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йдет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11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марафон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 показ оцифрованных кинодокументов с сюжетами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0-8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архи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задать интерес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ах,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архивным отделом.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консультируют и покажут наглядно все этапы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ем с 9:00 до 17:00 (перерыв с 13:00 до 14:00)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Ленина, 69. Справ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300829 (доб. 16),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у мэри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